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蘇聯艦艇의 砲擊을 日滿軍이 應戰擊沈
一隻沈沒 一隻蒙害 一隻은 逃走
卅日乾岔子島南側서

【新京三十日發同盟至急報】關東軍發表 今三十日午後三時 乾岔子島南側水道에 蘇聯邦艦艇三隻이 侵入하야 不法하게도 該地警戒中인 日滿軍에 射擊을 加하엿슴으로 이에 日本軍은 不得已 이에 應戰하야 그 一隻을 擊沈 一隻에는 多大한 損傷을 與하고 他의 一隻으로 하야금 不得已 遁走케하엿는데 日本及 滿洲國政府는 即時 蘇聯에 對하야 嚴重한 抗議를 提出하엿다

【新京三十日發同盟至急報】外交部에서는 三十日午後三時 乾岔子島南側水道에 蘇聯艦隊三隻이 侵入하야 該地警戒中인 日滿中軍에 對하야 不法射擊하엿다는 報에 接하자 即時 外交部北滿特派員에 訓令을 發하야 在哈蘇聯總領事代理 그즈네쓰오프氏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發하는 同時에 今後絕對로 蘇聯艦隊가 侵入치안홀것 事態를 擴大시키지 안키爲하야 必要한 一切의 處置를 取하도록 至急手配하여주기바란다는 「뜻」 嚴重히 抗議시켯다 (以上號外再錄)

乾岔子島는 滿洲領
蘇聯側措置를監視

【東京電話同盟】赤軍의滿洲領土不法占據問題는 重光리트비노프會談의 結果事件勃發前의 原狀으로 回復하라는 日本政府의主張이 貫徹되여 蘇聯側은 問題의兩島로부터 部隊를 撤退하기로되여 大體로 落着되엿는데 蘇聯側은 아직撤退에 同意하엿슬뿐으로 果然誠意로서 이를實行할지 그與否가 今後問題이오 또 兩島의 領有問題에 對하야 蘇聯側에 아직相當한 異論도잇는模樣임으로 반듯이 早急히 樂觀할수업다 그러나 乾岔子 金阿穆河의 兩島가 滿洲國領土이라는것은

一、乾岔子島 滿洲國은 水路協定의 結果에基하야 燈台를設置하고 燈台守를設置한 事實이잇서 明白히 滿洲國領土인것을 立證한다

二、또條約上黑龍江으로서 國境으로한다 河川의 國境線은水心即境界로하는데는 主流의中心인 航路로 한다는것은 國際法上의通念이다 兩島의 所在는 即滿洲國側의 飲域으로서 水深이야러서 水心은蘇聯側航路로한다은 過般滿露協定에서 蘇聯側이確認한바이다

古事實에 鑑하야 滿洲國領土임은當初부터 明白한 事實임으로日本側은 蘇聯側이 撤兵을實行하야 兩島를 原狀으로 回復하는以上 同問題는 解決될것이라고觀測한다 그런데 今後蘇聯側이兩島의 歸屬問題를 提出한다면 그는今回乾岔子事件과는別個問題이오 蘇滿國境確定의 全面的問題中에 包含시킬性質의것이란見解를 取하고잇다

蘇、依然領有主張
蘇滿國境의 兩島占據事件과 重光大使公電內容

【東京電話同盟】廿九日 午前零時(莫斯科時間)로부터 一時間에 亘한 重光駐蘇大使와 스토모니야코프外務人民委員部次長과의 會見及 同日午後一時半부터 三時半까지 行한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과의 會談의 結果에 關한 重光大使로부터의 公電은 三十日早朝 外務省에 到着하엿는데 堀內次官、東鄕歐亞局長等外務首腦部는 午前十時부터 省內에 會合하야 右公電에 基하고 今後의 日本政府의 對策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그런데 公電에 依하면 乾岔子、金阿穆河兩島가 依然히 滿洲國領인 旨를 主張하야 赤軍의 撤退를 要求한 重光大使에 對하야 蘇聯側도 相當히 强硬하게 兩島가 蘇領이란것을 主張하야 論議가紛糾된 模樣이나 結局 蘇聯政府가 兩島를 武力的으로 占據한 非를 認定하고 同事件을 平和的으로 解決하고저 蘇聯兵、艦撤收에 同意하게된것이다 그래서 同事件을 圍繞한 日蘇兩國間의 一觸即發의 危機는 大體로 解消하게된것이다 그리고 蘇聯側은 撤收에 同意를 與하엿슬뿐이오 兩島의 領有에 關한 見解에 對하야는 아직 完全한 意見一致를 보지못하야 蘇聯側이 어데까지던지 兩島의 領有를 主張한다면 今後 相當한 紛糾는 未免하리라고 觀測된다

180695

企畫廳參與
十八名一日附任命

【東京電話同盟】企畫廳에서는日滿一體의 經濟五個年計劃을 비롯하야 社會省問題熟練工養成問題、貴族院改革問題等 當面의重要政策의調査 立案에 當하기로 되엿는데 廣田企畫廳總裁는 그立案에 際하야 民間의 學識經驗者를 參與시키기로하고 官制第五條에 依하야 參與十八名을決定하야 一日附로 左와如히發令하고 今後職務의 必要에 應하야 더욱參與를 追加任命할터이다

帝大敎授 那須皓
理化學硏究所長 子爵 大河內正敏
東京市政調查會 理事 池田宏
貴族院議員男爵 大藏公望
産業組合中金 理事長 石黑忠篤
國策硏究會 理事 中村藤兵衛
栗本鐵工所長 栗本勇之助
滿鐵東京支社長 伊藤述史
全國町村長會長 井坂勉
東洋經濟新報社長 石橋湛山
高橋經濟硏究所長 高橋龜吉
法政大學敎授 高木友三郎
協調會常務理事 町田辰次郎
三井經濟硏究所長 福島喜三次
名古屋商工會議所會頭 靑木鎌太郎
東京商工會議所理事 木村增太郎
三菱經濟硏究所長 長岡德治
倉敷勞働科學硏究所長 暉峻義等

滿洲國
各部大臣更迭

【新京三十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今日改革된 新行政機構下의 各部大臣을 七月一日附로써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軍政部大臣 特任治安部大臣 于芷山
民政部大臣 特任民生部大臣 孫其昌
司法部大臣 特任司法部大臣 張煥相
實業部大臣 特任産業部大臣 呂榮寰
財政部大臣 特任經濟部大臣 韓雲階
交通部大臣 特任交通部大臣 李紹庚
國務院總務廳長 特任總務長官 星野直樹
興安西省長 特任興安局總裁 [illegible]
陸軍上將 于琛澂
兼任三江省長 國道局長 直木倫太郎
特任官의待遇를 賜함

[illegible]上防備陣强化
沿岸에軍團增配

【青島二十九日發同盟】[illegible]의 山東濰州에 駐屯하야 最近第七十四師長李漢章麾下의 四百四十三團은 芝罘 龍江方面의 魯東一帶에 配置되여 그行動이 매우 注目된다 右는 [illegible]의 山東半島沿岸의 防備를 最近에 强化하기로한 [illegible] 安邱 諸城의 線으로 南北으로 貫通하는 山東縱斷의 對日防備第一線과 併行하야 沿岸線의 軍事施設構築에 努하야 派遣된것으로 一般에 多大한 刺戟을 與하엿다

西叛軍及政府軍
兩交戰團體承認?

【倫敦二十九日發同盟】獨伊兩國代表는 二十九日不干涉委員會에서 國際監視體制補强에 關한 英佛案에 反對를 表明하고 다시나아가서는 現在英佛監視船에 坐乘한獨伊兩國人監視員의 撤退를命令할意向이란 旨를 聲明하야 바야흐로 不干涉體制의 進退는重大危機에 正面하게되엿다 英國의消息通은 折衝의 前途를 悲觀하고 英佛兩國政府는 結局 프랑코政權을 交戰團體로서 承認하게될것이란 觀測을 내리고잇는데 消息通의 見解를 綜合하면 如左하다

一、리벤트롭프大使는 英佛兩國艦隊가 獨伊兩國政府의脫退한後의 監視區域을擔當함에 反對하엿는데 右는英佛兩國政府가 발렌샤政廳만을 代表로하야 承認한結果 勢力의均衡을破壞하게될것을 憂慮함에 不過하다

一、但英佛兩國政府가 프랑코政權을交戰團體로서 承認하는境遇에는 獨伊兩國政府도 右補强案을그대로 承諾할지도몰르는다

一、七月二日再開의不干涉分科委員會에서 雙方의意見이 一致되지안는境遇에는 英佛兩國政府는 監視體制의終熄을聲明하고 獨伊兩國政府에對하야 代案의提示를要求하게될것이다

一、獨伊政府가 右代案의 提示를 拒絶하는境遇에는 不干涉分科委員會도드디여 政府叛軍兩政權을 交戰團體로서 承認하야 他國政府에 對하야中立宣言을要請하게될것이다

北部人民戰線派
俄然叛亂이勃發

【앙데二十九日發同盟】西班牙北部人民戰線派의 牙城산탄데르市에서二十九日 突然 叛亂이 勃發하야 無政府派의 領袖호세·이보네스氏는 多數의 社會黨員을虐殺하엿다고 傳한다 叛亂軍은貯藏食糧을 全部市民에 配給하도록 命令하엿다고 傳한다

社說
日英兩國과太平洋의平和
—中國問題에關하야—

一

過般英帝國會議에서 라이온즈濠洲首相이 太平洋平和會議를東京에서 開催하자는 主張은 英帝國會議가 끗난 오늘 有耶無耶中에 消息이업게되고 오직 吉田駐英大使와 英外務當局間에 日英國交調整折衝이 繼續되고잇는것이 報道된다 이것은 英帝國과 日本과의間에는 엇더한 溝渠가存在하야 이國家的溝渠를 除去할必要가잇다는것을 示唆하는것이다 그러면 過去의同盟國日英兩國間의 友誼를增進하는데 障碍가되는것은 무엇인가? 첫재는 日本의 大陸政策 및 南進政策에 對한 理解의 缺如、둘재는 膨脹되는 日本의 軍事的實力이 英帝國國防에 對하야 一種의 脅威가된다는 點이다、特히 濠洲自治領이 南進政策에 對하야 軍事的으로 懷疑觀念을가지고잇는것은 濠洲首相이 現在아모런 軍事上 摩擦이 업슴에 不拘하고 過般不可侵安全保障機構形成의 必要를 力說한데서 엿볼수잇다。

二

日本의 大陸政策이 滿洲事變以來 壓倒的으로 强化됨에 따러 南中에 어떠한 다른나라보담도 가장 만히 投資하고잇는 英國은 中國에 貿易上으로 英國보담 優秀한 米國과 協力하야 大陸政策遂行의 旣成事實否定에 힘을 傾倒하엿든것은 一九三二、三年 聯盟의 日中問題討議에잇서서 如實히 나타낫다 滿洲北中에 沿한 日本의政治的經濟勢力의 强化를 阻止하기爲하야는 北으로부터 軍事的으로 日本에對한 防波堤가되는 蘇聯과도 一定程度의 諒解를 遂하고잇는것은 歐洲의 集團的平和機構再建에잇서서 獨逸이 必須條件으로 내걸고잇는 佛蘇相互援助條約廢棄를 支持치안코 그存續을 承認하고잇는 態度로서알수잇다、그러나 實質上으로 英國은 對外投資및貿易의 『푸로포순』으로보면 中國에 在한利權의維持는 그다지重大한것이아니라는것은 一九三五年現在 英國의外國貿易總計六二、八四에 對한中國의 比率은〇、八五밧게안되는것으로 알수잇다 日本의對中貿易이 對外貿易中의 가장重要한部分을 占有하고잇는것에 比하야 問題도아니된다。

三

그러면 왜 쑛쓰는 日本의神經을 刺戟하는 新嘉坡大軍港計畫으로서 過般 五千萬磅이란尨大한金額을計上하고 七千萬磅의艦隊擴充計畫을 樹立하는等本國에잇서서의 國防計劃보담도 엄청난計劃을세우는가하면 그것은露骨的으로말하면 적어도南洋에在한 英帝國의 가장重要한自治領濠洲 新西蘭 및印度等의 資源地帶및英帝國勢力圈內라고볼 蘭領印度까지를包含한 一聯의地域을保護함에잇다。적어도新嘉坡、香港및北濠洲의 다윈港을連結하는國防線을維持함에는日本의南洋海面에到達하야 發揮할수잇는海軍力의 發展에못하지아니한 海軍力을維持함이 必要하다고생각하는때문이다 또한 이것만이 日本의南進政策에對한 防波堤가될수잇는唯一한保障이라는것은、屢屢히 [illegible]

蔣介石西安半月記 ②
越墻避身是何事
失足倒地三分間

十二月十一日

이른아침 내가 驪山을 散步하고잇슬때 驪山上에서 두사람이 나를 約十分동안 바라보는것을보고 자못 奇異한感을가젓다 廳前으로 도라와 西安과潼關을 連한 街道를바라보니 多數의軍用自動車가 東으로進行하고잇섯다 執務時間이되여 나는事務室로드러가 더以上깁히생각하려하지안핫다 이때 西北剿匪司令部職員黎天才가來着하야 面會를請하매 先約이업섯슴으로 異常하게역엿다 會談中 黎는剿匪方針에對한 懷疑的態度를表示하야 그의意見은 昨日張漢卿(張學良)의말과 同一함으로 그의思想은 이미惡化되엇슴을알고 그에게 訓戒하여주엇다

이날밤 余는張學良 楊虎城 于學忠을비롯하야 各將領을 行營에 招待하야 晩餐을 함께하면서 剿匪計畫을 協議하려하엿다 그러나 楊虎城과 于學忠은 오지안핫다 張學良에게 理由를무릿드니 그도亦是 今夜 西安에來訪한 中央軍政長官을 招待하게되여 楊과 于는西安에서 接客하고 張自身도 이晩餐이 끗나는대로 西安에赴하야 招宴에 參席하기로되엿다고 對答한다 이때 余는 張學良의 今日의形色은 매우 焦燥하고 精神이 安靜되지못한것을 나는 甚히 異常하게역엿다 그는昨日 내가 그를 譴責한것을 不快히 역임인지 或은 내가 今日 黎天才를 叱責한것을 드럿슴인지 寢床에서 생각하여보앗스나 終始理由를發見치못하고 그대로잠을 이루엇다。

十二月十二日

새벽五時三十分 牀上運動을마치고 換衣하려할지음에 突然 銃聲이 드럿다 곳 侍衛를 보내여 探知케 하엿드니 銃聲이 連發하야 끗치지 안홈으로 이에 東北軍이 叛亂을 이르킨것이라고 直感하엿다 今回의 陝西行에 余는 護衛二十名 박게 더同伴치 안햇슴으로 行營外部의 警戒는 張學良의 衛隊가 當하엿든것이다 얼마지나 侍衛官 竺培基와 施文彪로부터 『兵變이 이러나 叛軍은이미 第一橋를건너 進入하고잇다 兩方의猛射로 多數의死傷者를내엿다 叛兵은 營內에防備가 잇는줄로알고 暫時退却하엿스니 請컨댄 委員長께서는 速히 이곳을 떠나라』는 報告를바덧다 竺施兩人의 報告가 畢하려할때 區隊長毛裕禮가 傳令을보내여 『叛軍은 이미 第一門에侵入하엿다 그러나 後山 哨兵所에電話하엿드니 該處에는 異狀이업고 叛兵도 나타나지 안헛다한다』고 報告한다。余가 『毛區隊長은 어데잇는가』무르니 『區隊長은 方今 前庭第二橋前에 잇는 假山에서 衛隊를 指揮하고 잇스니 請컨댄 委員長은 먼저 後山으로올러가라』고 答한다 다시余가 『叛兵의 形狀이 如何한가』무르니 『毛皮帽子를 썻슴으로 東北軍官兵이라』고 答한다

當時余는 今回의 兵變은 赤匪에 煽動을바든 臨潼駐屯部隊만이 叛亂을 이르킨것으로 張學良의 計畫的謀反인줄로는 생각지못하엿다

萬一 東北軍의 全部가 叛亂을 이르킨것이라고하면 余의行營은 全部包圍되엿슬것이다 牆壁外側에는 叛兵의 蹤跡이 업는것으로보아 兵變은 一部에 不過할줄로 알엇다 萬一에 山嶺을넘어 밝기만기다리면 鎭定될줄로 미덧다 그래서余는 侍衛官 竺培基 施文彪兩人과 副官 蔣孝鎭을 다리고 行營에서 나와 後山으로 向하엿다 東側後門에 이르니 門이 잠겨잇서 열쇠를차질수업서 그대로 牆壁을넘어 가려하엿다 牆壁은 地面으로부터 十餘尺 박게 더놉지 안호나 外側은 深溝에 臨하여잇다。어두운가운대서 그만 失足하야 溝內에 떠러질때 발에 傷處를 바더 疼痛으로 一時를 거를수업섯다 約三分後 다시 이러나 것기始作하야 護衛兵이 駐屯하고잇는 적은 廟子에 到達하엿다 余는 그들의 扶援을바다 山으로 오르기 始作하엿다 이山의 東側에는 通路가업다。그러나 西便으로 向하면 叛兵과 맛날

危險 이잇슴으로우리는東側으로 向하야 險崖를 기여올랏다。約三十分後 山頂갓가이 이르러조금 平坦한곳을 擇하야 小憩하면서 衛兵을 前嶺에 보내여偵察케하엿드니 四方에서 銃聲이 이러나기始作하야 彈丸은내몸을 쓸치고 날러가고 衛兵들은 모다 彈丸을 맛고 쓰러진다 이에 余는 이미 叛兵에게 完全包圍되고 兵變은 一部軍隊의것이아니라 東北軍全體가參加한것인줄로 깨닷고 마침내避身하기를 斷念하고 行營으로 도라가기로 決意하엿다 거름을 빨리하야 舊道를 차저 山을 나려오다가 山中腹에서 失足으로因하야 巖穴에 落入하엿다 巖穴속에는 荊棘이 叢生하야 내몸하나 박게더容納할수업섯다 다시이러나려하엿스나 極度로 疲勞하야 이러날氣力이업서 그대로 구멍에 빠진채로 暫時쉬이면서 形勢를 觀望하기로 하엿다

날이새이매 따라 余가巖穴에서 밧글바라보니 驪山미테는 이미 軍隊가包圍하여잇고 行營박게서는 機關銃 迫擊砲소래가 끗칠업시들린다 余의護衛兵은 約半時間이나

勇敢 히 對抗을 繼續하엿스나 아무리하여도 屈服치 안홈으로 叛軍은 大砲를 使用하야 進攻하고잇섯다 九時에 이르러 銃聲은 끗친다 叛軍은四方으로 흐터저 余의 所在를찻는다 그들은 내가 숨어잇는 穴邊을 二次나 通過하엿스나 余를發見치못하엿다。(續)

本紙定價改正

最近 新聞用紙와 其他 諸原料가 顯著히 騰貴하엿슴으로 할수업시 七月一日부터 本紙 定價를 左와 如히 改正하옵니다。
其實 減頁도 생각해보앗사오나 內外多端且複雜한 此際에 報道陣을 縮少하는것은 讀者諸彥의 平素 期待하시는바에 報答하는 所以가 못될것을 밋고 그대신 價格을 改正하기로 하엿사오니 저의 苦衷의 잇는바를 諒察하시와 倍前 愛護 하시기를바라옵니다。

一個月 金壹圓貳拾錢

昭和十二年七月一日

東亞日報社
朝鮮日報社

藥 卸問屋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電話本局 四〇九・一〇六八 九〇四・三四四八
振替京城一六一番

豫約店●行商員 急募

白菜種

眼鏡의 萬年筆의 仕入은當店에
良品廉價 商報進呈
ⓚ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七番地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여러분의 사랑하는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엇습니까 雨期는 일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都散賣
우장옷
雨衣雨裝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各種
紳士用レインコート各種
京城光熙門外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電話本局一〇一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失業者案內
小資本으로以小成大할수잇는各種工業을敎授하는案內書를請求次第로進呈(三錢切手要함)
工業用品日用品製造用品化粧品原料其他一切
京城府新設町一三二의七
カネヤ商店
振替京城六七九九

朝報案內

急告
本商會外交員金鎭求는不正事實이有하야本年六月二十五日부터解雇하엿스니地方人事는愼勿見欺하시압 京城光熙町一ノ二七八 同仁眞藥商會謹告

恩給
五年分以上特別立替資價引受更又立替 京城林町八八(孝經橋南側實屋後)朴商會

배수남모친!
형님! 배수남모친이여! 지금이라도게십니까? 리별한지三十年이어망고를보시거든 다답합니다. 이곳을주소로편지하시오
(Miss HYun Sook Pak Minn & Company Chinese Caterers 1125 E. Jefferson Ave. Detroit Mich. U.S.A)
北米留 朴賢淑

少年七月號
참싸다 곳사자!

七百萬 朝鮮어린이의 唯一한 동무 『少年』! 읽어서 고대로 살로가고 뼈로 갈 이 內容!
※이달의主要內容※

·七月七夕(傳說)……金道泰
·中國少年(讀物)……朱耀燮
·코찡찡이(漫畫)……鄭靑羽
·地球얘기(科學)……沈亨弼
·신 발(童謠)……尹石重
·공의노래(童話)……李順伊
●朝鮮日報社寫眞見學●
編輯局 營業局 出版部 寫眞部 工場……할것업시 大朝鮮日報社를 사사치 구경! 『少年』七月號 한卷만가지면 방에 가만히 안저서 朝鮮日報社속을 다 구경할수가잇니다!

少年讀本……수요한
★少年英雄傳—車相瓚
★童謠作曲集—尹克榮
★少年健康讀本—鄭潤鎔

少年作品特選集
▲밀 자(童謠)……趙俊哲
▲진달래(童謠)……崔石巢
▲바 람(童謠)……朴光鎬
▲報德寺(作文)……李明九
▲봄(作文)……李炳璉
▲강아지(作文)……金台鎭

漫畫·공일날 漫畫·개고리의 피(아기자기 고우우 숨 만화들순) 漫畫·修學旅行……鄭靑羽
□少年談話室 □깔깔笑年會
□少年娛樂室 □少年遊戲室
□척척問答室 □少年新知識

音樂家가되려면……洪蘭坡
부처님만든얘기……金復鎭
키다리先生생각……馬海松
재미나는朝鮮말……崔鉉培

白假面 探偵冒險長篇小說! 金來成先生의大力作

三大名作讀物
·호랑이사냥……桂春根
·어머니차저서……蔡萬植
·웅철이의모험……朱耀燮

特別附錄 움직이는그림책
活動寫眞처럼움직이는 신기한그림! 이달『少年』의 特別附錄!

★팔뚝時計타는大懸賞★
누구나 할수잇는 아조쉬운問題! 一等에萬年筆 三等에하—모니카

단十錢 朝鮮日報社發行 (振替京城八七八五) 販賣所大募集

終焉！四十年舊緣

徹新、信聖兩學校도 經營引退를決議

徹新은適任者에、信聖은理事會에引繼

貞信과保聖은從前대로經營

【平壤支局電話】이십구일총회에서 대구(大邱)계성학교(啓聖學校)와 신명여학교(信明女學校)의 경영에서 인퇴하기로결의한 미순회에서는 삼십일도 계속하야 회의를열엇는바 이날은 아침부터 선교사들의 인사문제에관하야 여러가지 어려운문제를 토의하다가 오후다섯시경에 이르러야 금번회의에 초점이되여잇는 경성경신학교의 경영문제에 대한토의를 하게되엇다

이날토의의 도마우에오른학교로서는 경신학교와 선천(宣川)신성(信聖)학교로 경신학교문제에대하야는 한편에서는 그대로경영하자거니 량편의론쟁이 격심하다가 결국은 표결로결정을하기로하고 투표를한결과 드디어오십대삼십으로 이역시 대구계성、신명두학교와 마찬가지로일천구백삼십구년부터 경영을 인퇴하기로 결의하얏다 이와동시에 선천신성학교도 미순회로서는경영에서 손을떼기로 결정하엿는데 이학교는 면해전부터 재단법인의 조직을 계획하고 활동해오든터에 작년설립인가 미국선교회가 조선안에잇는 각학교의 경영으로부터 손을떼겟다고 발표가되자 이재단법인운동도 일시중절이 되엿는데이번에는이결의와함께 이학교에대한 문제는 미순회실행 위원회와 이학교리사회가 합작하야 재단법인 설립을촉진하는 동시에 선교회본부의승인을 어더경영을 인계하기로되엿다고한다

그리고경신학교의 인계문제에 대하야는 금후개인이나 단체나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가리지안코적당한 인물만 잇스면인계한다 (사진상은 경신교、하는 신성교)

引繼할財團은 現在도念慮업다

徹新 "쿤스"校長談

금번미순회총회에 참석코저 평양에와잇는 경신학교교장 쿤스(쿤스)씨를 서양인학교기숙사로 차즈니 다음과가티말하엿다

학교당국자로서는 이와가티결의가된것을 실로섭섭하게생각합니다마는 이미대세가이러케되엿스니 할수업지요 폐교요? 역사잇는 우리학교가 절대폐교가튼비운을 만나지안흘것은 확신합니다 인계할재단은 지금이라도잇다 누구냐고? 그것은 아직 발표할 시기가아니나다 라고하며 자못자신잇는 어조로 인계의확실성을 강조하엿다 (사진은 쿤스교장)

原告五百十名

新堂町百六十二番地의住民 地主를걸어逐提訴

원고가 오백열명이나되는 진소송(珍訴訟)——부내신당정(新堂町)일백륙십이번지의일호 리갑진(李甲辰)등 오백열명은 부내한강통(漢江通)십일번지의일백칠십오호 내전원치랑(內田元治郎) 내전야스미 내전조(內田組)대표 내전우웅(內田又雄)씨등삼명을상대로 삼십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수속리행(土地所有權移轉登記抹消登記履行)청구소송을 제기하엿다 소장을보면 원고들이현재살고잇는 신당정일백륙십이번지의터 일만팔백구십오평은 본래부터 공동묘지로서 경성부의 소유가되엿섯는데 그후묘지를다른곳으로 옴기게되자 원고들은소화이년께부터 그땅에 몰려들어 한집두집식 건물을짓고 살게된것이 어느듯오백여호의 촌락을 일우게되엿다 원고들은 어느때까지 남의땅에집을 그대로짓고 살수가업서서 소화오년구월에는 경성부에 그땅을분할하야 그들에게불하하여주기를 진정한결과 부청의승낙까지지엇고 불하되기만 기대리고잇든중 소화팔년칠월에 경성부는 원고들의 희망을무시하고 원고인내전원치랑씨내외에게그땅에 현재사는 사람으로 그땅을살려고 희망하는자에게는그를 연고자로인정하고 그액에팔 일』이라는 조건만부처서 별안간불하하여버렷다 원고들은 경성부의 괴이한태도에 분개하엿스나 어떠케할수업서서 소화구년삼월에 대표자를 선정하야직접내전씨내외에게 그땅을 분할불하하기를 교섭한결과 경성부에서 불하한때의 한평가삼원오십전리익을 부처서 매평삼원오십전식에 원고들에게 팔기로되엿스나 피고내전치랑 내외는 어리핑게 저리핑게하고 불하를하여주지안흠으로 원고들은 부득이 그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야 현재까지도 경성복심법원에서 흑백을 다투고잇는데 피고 부처는 지난 임월 십일에 내전조대표 내전우웅씨에게 그땅을 매도하야 이미명의 변경을하여 버렷다 그러나 이것은 내전원치랑씨 내외가 원고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매매계약인즉 피고들은 그토지의 소유권이이전등기말소 수속을리행하는동시에 내전원치랑내외는 원고들오백열명에게 그들이 각각 살고잇는터를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게하여달라는것으로 이소송이장차 어떠케귀결될지는 원고들오백열명의 가족약삼천명의 주택문제에관하는 큰사건인만큼 자못사회일반의주목을끈다

鐵路에쇠뭉치 列車轉覆計畫

이십구일 오후열시오십분쯤하야 부내한남정(漢南町)북편이백『메돌』가량되는 경원선선로에약 자가웃가량되는 쇠뭉치를 철사로 괴어『레일』에 매어노하 열차전복을 꾀한것을 서빙고(西氷庫)보선구공부로수철(盧壽喆)리대춘(李大春)두명이 미연에 발견하고 곳급히내엇는데 이관계로원산(元山)으로 가는열차는 약오십분간이나 연발되엿다한다 이보고를받든 용산경찰서에서는사건을 중대시하고 범인수색에노력한결과 그쇠뭉치를 사갓든점을 알게되엿슴으로 머지안하야 범인을 체포할것갓다고한다

스포츠界의慈父 體育會長을辭任

十三年間을運動界에盡瘁 後任會長은來三日에決定

尹致昊氏

우리 스포-츠계와 성장을 가티해온 체육조선의 총본영으로 창립된지 십팔년이란 장구한 역사를가진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의 회장의 중임을 마터서춘풍추우 십삼년동안을 민족보건의 성쇠는 직접 그민족 그국민의 성쇠를 지시함에처도라는 신념아래 체육계의 발전을 위하야 진력한 좌옹(佐翁) 윤치호(尹致昊)(七二)씨는 돌연 그 자리를 사임하고 조선체육계로부터 은퇴할것을 성명하야 스포-츠계로서 가장 중대한 시기에 직면한 이때에 큰충동을 주고잇다

윤치호씨는대정십사년에 조선체육회회장으로 취임한이래 내려쪼이는 염양아래나 눈보래치는 엄동설한도 가리지안코 언제든지 경기장에림하야 출장선수들을 격려하고 임무하기에 힘을다하야왓다 이리하야 우리스포-츠계의자부(慈父)의직분을 십이년이하로가티 해오다가 지난오월삼십일일에열린 동회정기총회석상에서 임원개선을말하엿스나 투장은 사퇴할뜻을말하고 윤회표의 결과는또다시윤회장이 류임하기로되엿는데 그후 서면으로 동회리사회에정식사표를 제출한바 잇서 리사회에서는 윤회장의 사표철회를 간청하는한편 류임운동을 극력하여오든중 그사의(辭意)는 자못구더서 드듸여지난금월십일에 긴급리사회를열고 사표를 리사회로서만은 수리하기에이르럿다 이에대하야 체육회에서는 후임회장의 인선과유임회장의공로를 사례하는모둠의개최건등을 토의코저 오는삼일오후두시부터 부민관집회실에서 림시총회를 열기로되엿다 (사진은 윤치호씨)

老軀로不堪 新進을期待

辭任한尹致昊氏談

조선체육회장의 중임을 사퇴하는 윤치호(尹致昊)씨는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조선체육회 회장의 자리를 마터서 여러해동안 미력이나마 바처왓스나 지금은 연로한 나로서는 차라리 은퇴하고활동력이 풍부한 신진들에게 그자리를내어 드리려는것입니다 지난오월삼십일일의 총회때에도나의 의사를 말하고 사퇴한바잇섯는데 이번에 정식으로사표를 체육회리사회에 제출햇습니다

崔承喜女史主演으로 輸出映畫製作

金剛山을背景으로 日活에서製作準備

일본활동사진주식회사(日活)의 동경다마천촬영소(東京多摩川撮影所)에서는 조선의독특한 색채를 무용으로 표현하야 동경에서 활약하고잇는 최승희(崔承喜)여사를 주연(主演)으로한 영화작성을 계획하고 얼마전에 최씨에게 교섭하엿든바 최씨는 금강산과 조선의 풍경으로하야 외국으로 [illegible]나간다면 출연해도 조켓다고 회답하엿다한다 그러나 일본활동사진주식회사로서는 이것을 제작하자면 상당히만흔 비용이 들게되므로 머리를 짠결과 조선철도국으로 공동작성을하엿스면 어떠켓느냐는문의를 하여왓다한다 철도국에서도 이취지에는 대찬성이나 자세한 내용을알어야하겟스므로 방금일본활동사진회사에 대하야 물의중인데 이것이 실현되는날이면 조선을 세계에 소개하는조흔 재료가 되겟스므로회답이 오는것을 보아서 구체적으로 기획을 세워볼터이라한다

그리고 최승희 여사는오는월 이십칠일 이십팔일 이십구일의 삼일동안에 동경극장에서 주야이회식으로 제사회신작 무용발표회(新作舞踊發表會)를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제목은 리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처용무(處容舞)와 봉산(鳳山)탈춤과 무용금강산등외에 두서너가지이라한다 이와가티 조선비치 농후한 무용을하게되엿스므로 벌서부터 동경서는 인끼가 끓어올르고잇다한다 (사진은 최승희여사)

漢拏山探險日程 二十三日로變更

歸路는麗水와南原을거처서 往復六日間의豫定

본사에서는 금년여름에 남해가운대에 오뚝소슨신비의 명산한나산탐험기회을하게되야 이소식을 한번신문에보도하자 남에서 북에서 참가지원이 꼬리를물고 작구드러온다 본사에서는 이제 만반의준비를 다하야 한나산은 물론 제주도의 전폭을끌고로완전히구경할 '프로그람'을 작성하엿는데 시일은 다시 다음과가티약간 변경하야 확정하게되엿다 즉 이십삼일아침 일곱시오십분에 경성을떠나 이튼날 아침에 제주도에 다이여서 이십칠일까지 한나산을 비롯하야제주도내의 각가지 고적명소를구경하고서 도라오는길에이십팔일에는 려수(麗水)로 들러서 제승당(制勝堂)과 려수항만을 참관하고 도중에 다시남원(南原)에 나려서 춘향전(春香傳)으로만흔'로맨스'를 가진 광한루(廣寒樓)를 구경하고 이십구일아침에 경성에 도라오기로되엿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갓다

▲七月二十三日午前七時五十分京城驛發 午後六時三十五分 木浦着 午後九時 木浦發

▲同二十四日午前六時 濟州着 市場 三姓穴 海女潛水狀況 慕瑟浦 飛行場 西歸浦 果樹園 等視察

▲同二十五日 城山浦 榧子林 蛇穴等視察

▲同二十六日 觀音寺 白鹿潭 靈室求景後 漢拏山頂山一泊

▲同二十七日 下山 椎茸栽培場

▲同二十八日朝 麗水着 制勝堂參觀 午後二時四十九分 南原着 廣寒樓求景 午後七時五十六分南原發

▲同二十九日 午前七時半 京城着

邊永瑞博士歸國 埠頭에盛大한餞送

조선교육사업과 선교사업에심혈을다하야오든 감리교회、신학교(監理敎神學校)교장 변영서(邊永瑞)박사는 드디어고보한바와가티 안식년(安息年)을 어더 고국미주로향하야 삼십일 오후네시십오분차로 경성역(京城驛)을떠낫는데 역두에는 학교회관계자백여명이 나와서 전송하엿는데박사는 [illegible]로가서 그곳서 먼저가잇는 부인과맛나 함께 떠나게될것으로 명년팔월경에는다시 조선으로 도라오리라고한다(사진은 역두의 변박사)

七十老婆가自殺

【永興】 함남영흥군 진평면한동리(鎭坪面韓洞里)에사는 정세표(鄭世杓)의안해윤씨(尹氏)(七三)는 십년전부터 류마치쓰에걸려 이재껏고통을바다오다가 종시낫지안흠으로 지난이십일 오후열한시경에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하엿다한다

京城帝大豫科 寄宿舍擴張

경성제국대학(城大)에서는 예과(豫科)기숙사를 대확장하야 예과생도전부를 수용하도록 하야달라고 이십구일 총독부학무국에 요망하얏는데 학무국에서는 예산기타 여러가지관계로 전교생도를모두 수용하도록할수는업슨즉 약십삼만원의 예산으로제일학년생도만 전부수용하도록명년도예산에 요구하야 증축할터이라한다 현재예과기숙사는 약칠십명밧게 수용하지못하는데현재 제일학년생은 약일백륙십명임으로 금후일년생을 더수용하도록 확장증축한다는것이다

雨量觀測所를 四個所에新設

【光州】 제주도개발상 중요한역할을할기상관측소(氣象觀測所)를 제주읍(濟州邑) 성산포(城山浦) 서귀포(西歸浦) 한림(翰林)등사개소에 신설하기로 결정이되야 명년도에는 설치하리라한다

曇天이當分間繼續 仁川觀測所發表

【仁川】 풍족히 올줄로 믿이도 간장을 조이게하든비는 하로하로를겨하야 흐렷다개엿다 참으로 사람의 가슴만태울뿐이다 이제삼십일오전륙시현재가지우량을뵈컨대 삼십일오전륙시부터 일일간에 ▲中江鎭 一二미리 ▲平壤 一二미리 ▲仁川 一八미리 ▲京城 一五미리 ▲全州 六미리 ▲木浦五미리 ▲濟州 三九미리 ▲雄基五미리 ▲城津三미리 ▲元山五미리 ▲江陵 二二미리 ▲秋風嶺一五미리 ▲大邱七미리 ▲釜山九미리 ▲蔚山一一미리 ▲淸津四『미리』 이여서 금후의천후를 뭇건대 현재우세한고기압이 북해도(北海道)와 천엽(千葉)현에 체류하야 남방의 저기압이 북진키 어려우나 칠백오십미리의 우세한저기압이 또한 구주(九州)장기(長崎)지방에 체류하고잇서 일본전국연안에는 불련속선이 걸처잇는관계로 당분간은담천계속되리라한다

交通禍二件

이십칠일오후 여덜시쯤 부내한강통(漢江通)이번지 야포대 정문압헤서 부내강기정(岡崎町)칠번지의 이십일호에사는청부업자고교신태랑(高橋新太郎)(三七)이가 지나가는 오른편에서서 부내삼판통(三坂通)이백십륙번지 일길옥(日吉屋) 음식점 점원 량홍식(梁弘植)(一○)이가 자전차를 타고 맹렬히 달려오다가 충돌되여 전기고교가 그자리에 너머지게되자 곳 부내영락정(永樂町)삼정목에 잇는 식촌병원(植村病院)에 운반하야 응급치료한결과 오른편 갈비뼈가 다섯개나 부러젓다는바 전치까지는 이개월걸린다한다

이십팔일 오후여섯시쯤 부내한강통(漢江通) 삽번지 십자로 압헤서 부내한강통삽번지의 오십팔호에사는 김상원(金尙元)(一七)이가 자전차를타고 가는데 한강통 삼번지 킹택시운전수신점룡(辛點龍)(二七)이가 경(京)구천삼백이십구호 자동차를 운전하고 한강을향하야가다가 충돌하야 김상원의 허리와억개뼈를부시게되여 곳부근 송야병원(松野病院)에다리고가서 응급치료를한결과 전치까지는 오십일이걸린다는 중상을바덧다한다

市街地建築物取締事務所別置

都市計畫令實施强化

조선도시계획령(朝鮮都市計畫令)실시에따라 경무국의도시건축물취체진(取締陣)은 적극적으로 강화하게되어 경무국안에서는청사가 극히협착하야 팽창하야지는 사무를 처리하야 갈수가업습으로 부내통의정(通義町)에잇는 체신리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자리에따로 시가지건축물취체사무소(市街地建築物取締事務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야준비되는대로 일간 경무과의 일부를 그곳으로 이전할 터이라한다

그내용인즉 전번에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일층 강화하게 개정하야 루차 보도한바와 가티 각유수도시에 방화지구(防火地區)、풍치지구(風致地區)、상업지역(商業地域)공업지역(工業地域)거주지역(居住地域)등 각지구와 지역을 설정하는동시에 건축물의 취체를 엄중히함에 따르는 사무의팽창과 내용의강화이다

白米窃盜團 仁川署에遂被捉

【仁川】 쌀의도시 인천 쌀전문절도단이 잡히엿다 인천부 금곡정(仁川府金谷町)이십번지 김경창(金敬昌)(二七)리교학(李敎鶴)(二七)두명이 공모한 부내 각미점과 정미소를 습격하야 전후 이십여회를통하야 절취하야 부내 음식점과 유곽에서 호유중에 인천서에 체포되엿다는데 피해액은전부사백여원에달한다한다

强盜七百五十件

智能犯은年年激增하는傾向 昨年中朝鮮의暗黑面

조선의 암흑면을 말하는작년도 조선의범죄상은 총독부경무국에서 조사중이든바 일전에조사가끗낫다 그조사수자에의하면 작년중 [illegible] 절도가륙만사천[illegible] 강도칠백오십건 [illegible] 횡령일만이천사백삼십륙건 강간、간통기타경찰범위반이 구만오천[illegible]건등 합계십구만[illegible]건으로 범죄경향은대개 강력범이 점차감소하는반면에지능범은 격증하는 일방이다 전년에비하드래도 사기일천사백구십팔건 횡령일천이백[illegible]건등의지능범이 각각증가한현상인데 이와가티 물질문명에병행하는지능범의 도량이 현저히보이고잇스므로 경무국에서는 [illegible]년도부터 형사경찰의 강화를도모하야 이에대처할계획이라한다

여름은健康破壞者 金城鐵壁百補丸

百補丸은여름에안쓸수업다
身體가虛弱하면肺病도慢性胃病도神經의異狀도生하기쉽다

百補丸을 服用하야 全身五臟六腑 諸機關의 抵抗力을 强化식히시요

一、百補丸은 人生의原動力인 心臟을 튼튼케하는强心作用을하며
二、全身의 養分을分配하는 胃腸을 튼튼케하야 滯症을 물니치고 食慾을 旺盛케하고 消化吸收作用을 强하게하며
三、全身組織의 根本機構이되는 筋骨을 튼튼케하야 體力을增進식히며老衰를 防止하고 精力分泌作用을 旺盛케하며
四、全身活動의 中樞機關인 頭腦를 健全케하야 神經衰弱 不眠症 乃至性神經衰弱等을 解消하고 一切精神生活을 强靱케하며
五、全身의新陳代謝를旺盛케하는 肺臟을 튼튼케하야 모든 結核菌의 低抗力을 强하게하며 潤肺生精、造血補陽하야 人生의 最大不幸인 靑春病을 一掃하고 興味津津 最大의 滿足한 生活을 맛보게합니다

右記五大効力을가진 百補丸이 補藥界에서斷然第一이라고하는것은

一、朝鮮社會에서 가장信用할수잇는 京鄕各界朝野名士諸氏가 임이 先服하고 그特効를 賞讃 推奬한事實과
二、海內海外大衆이 비빨가치 歡迎하고 四面各處에서 更生의 깃분마음으로 感謝狀을 보내는事實과
三、朝鮮藥業界有史以來 百補丸이最高의 賣上記錄을 突破한事實으로百補丸의 偉大한 効力은 補藥界의 斷然第一이라는것을 雄辯으로 證明하는 것입니다 조곰도 躊躇치말고 疑心치말고 服藥에 가장 適切한 時期인 只今곳 百補丸을 服用하시요
四、더욱이 只今 百補丸 一劑를 服用하여두시면 여름철의 心身疲勞、食慾不振、虛弱수척、其他모든一般虛弱症勢를豫防하고元氣百倍씩씩한몸으로여름을지내고가을을마즐수잇습니다

氣血不足 陽氣不足 消化不良 胃腸衰弱 食慾不振 肺弱腎虛 元氣不足 精力衰弱 神經衰弱 疲勞倦怠 貧血症 病後衰弱 强筋借力

北海道博覽會 名古屋博覽會 에서도販賣中에잇습니다

藥價 一劑 特價 拾圓 重用 貳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百補丸

京城堅志町五〇〇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京城五番
電話光化門(2)[illegible]

產繭

全南大養蠶計畫
道內各郡에指導員을派遣하고
八萬石產繭目標邁進

【光州】全南의 養蠶界는 例年 產繭高를 보이고잇는데 昨年度의 養蠶成績을 보면 八百町步의桑田이 芽枯病과 胴枯病等으로 三割三分의 減少를 보게되엇스나 補植以後 降雨量과 桑葉成長이 極히 良好하야 例年에 보기드믄 豐作과 收繭高를 보게되엇는데 全南道當局에서는 이 機會에 產繭 八萬石目標로 桑田 또는 養蠶等에 關하야 指導를 하도록 道內各郡에 指導員을 派遣하얏는바 各郡에 派遣된 指導員은 如左하다한다

▲康津郡 井手主事▲羅州郡 中川技師▲和順郡 崔[illegible]▲海南郡 原田技手▲長興郡 梅田技手▲寶城郡 岡本技手

一、實行事項—施肥及淸掃
二、普及事項—夏秋蠶飼育狀況
三、秋蠶計畫의 施設

石灰窒素工場
平壤에設置計畫
一帶의石灰石과無煙炭으로 獨特한製造法을應用

【平壤】總督府鑛山課 高濱技師는 平壤地方에는 多量의 石灰石과 無盡藏의 無煙炭을 가지고잇서 石灰石과 無煙炭을 原料로하야 石灰窒素工場을 設立하는것은 極히 容易하고 또 有利하다는 點에 留意하고 日本化學工業株式會社 秦野氏를 同伴 二十四日 來壤하야 平壤附近의 石灰石山과 無煙炭坑을 視察햇다

그런데 石灰窒素工業은 石灰石을 굽는데 無煙塊炭을 要하고 이러케해서어든 石灰를 無煙炭 또는 『코-크스』에 混合하야 電氣爐에 너코 電氣를 通하야 『카-바이트』를 만들고 『카-바이트』를 石灰窒素製造用爐에 너허 一千百度程度로 加熱하야 窒素瓦斯를 製作하는것으로 電氣爐에 使用하는 無煙炭은 八『미리』程度의 粉炭으로 使用하는터이나 高濱技師는 無煙塊炭의 需要는 대단히 만흐므로 電氣爐製를 抛棄하고 『세멘트』製造用의 『키룬』式에 依하야 無煙粉炭을 使用코저 日本化學側에 慫慂하얏다 이工場의 進出이 實現하는때에는 가장 進步的工程에依하는 石灰窒素工場이될것으로 期待되는터이며 이工場은多量의 電力을 必要로하나 여기에 對해서는 各種의 工程中에 생기는 餘熱을 利用할수잇는터이라한다

江原道를圍繞코
無盡爭奪戰展開

【江陵】江原道에는 아직 無盡會社의設置가 업는탓으로 既設各無盡會社에서는 이處女地의開拓을 爲하야 無數한 努力을 傾注하고잇는모양인데 這間 京城에福德을除外한 三無盡會社의 合同으로 中央無盡이 생기게되여이와 同時에 江原道는 新會社中央無盡의地域으로 編入하기로 內定되엇다는말이 傳하자 이地方과 密接한關係를가진 咸南元山無盡會社에서는 數日前 江原道中에도 嶺東六郡 即通川 高城 襄陽 江陵 三陟 蔚珍만은 元山無盡會社를 基盤으로하야 新設會社를 만들엇지 그런지안코 元山無盡會社의 地盤을 編入하야 江陵에 同社의 支店을 開設하도록 해달라는 陳情書에 關係各郡有志들의 書面을 要求하고잇는바 今般全部의 調印을 得하얏슴으로 不日內로 關係當局에 請願陳情書를 提出하기로 되엇다는데 今後新會社對既設會社의 間에 엇던地江原道를 自己勢力下에 두려고하는 爭奪戰은 猛烈히 注目된다

黃海田作技術員
田作協議會閉幕

【海州】黃海道田作改良의 열쇠를 차지하고잇는 田作擔任技術員의 田作協議會는 豫定과가티 二十五日부터 道廳會議室에서 佐佐木內務部長의 統裁미테 開催되엇다 出席者는 郡技術員 二十三名으로 農會技術員을 合하야 四十名에 達하는데 初日은 繼續되는 旱魃의 憂慮가 적지안는때

綾州地方薄荷
凶作을憂慮
種根凍傷·發芽不良

【綾州】全朝鮮的으로 有名한綾州地方薄荷는 全朝鮮總產額의五〇%를 占領하고잇는데 薄荷組合에서는 組合長以下 全職員이 總出動하야 積極的副業獎勵에注力하야 三萬餘斗落의作付面積으로 今年에는大豐作을豫想하얏든것이 昨冬의 順調를지못한 酷寒關係로 種根이 枯死또는凍死하야發芽의 成績이 良好치못하얏슴으로 大減收될 模樣으로 農家에서는 대단히 憂慮中이라고한다

鰮粕을食料로

鰮粕이 사람의 食料가된다—從來 鰮油를 搾取한 鰮粕은 肥料와 飼料로 使用될뿐이엇섯는데 最近 合同油脂會社가 淸津에서 이를 特殊한方法으로 粉狀으로하야『지밀』이라고 일홈을 붓치어 市場에 販賣하려고 하고잇다 製品은 生鰮의臭味와 脂肪分이 完全히 除去되어 먹기에조코 먹기시려지는일이적으며 뼈(骨)채 粉末로하얏슴으로『칼슘』分도 充分히 含有되어잇서 營養價値가 滿點인데 價格도빗싸지안타한다

使用法은 生채로 副食物에조코 『국』가튼데는 一立에五瓦의 比例로 使用하면 곳잘 맛이나고 『비스켓트』『팡』의加味料, 登山用食料로서도 將來가 期待된다고한다

兩麥酒會社서
十萬箱式增產

[illegible] 朝鮮內의 麥酒需要는 年年激增하고잇는바 朝鮮內의 麥酒工場인 昭和麒麟과 朝鮮麥酒兩社에서는 이에應하야 現在의製造能力(兩社合하야) 二十萬箱을 十萬箱式 增石하기로되여 朝鮮麥酒에서는 右增產에伴한 諸工場의 增築入札을 來三十日行하기로되엿다 昭和麒麟도 來春까지에는 增産設備에 着工하기로 되엇는데 要方의 增産設備가 完了되면 年六十萬箱의 供給力을 엇게되는 터이다 그런데 右增產設備에伴한工場은 貯酒庫一棟 麥酒釀造工場一列(現在二列)醱酵工場一棟이다

群山府	[illegible]	[illegible]
全州府	[illegible]	[illegible]
鎭安郡	[illegible]	[illegible]
錦山郡	[illegible]	[illegible]
茂朱郡	[illegible]	[illegible]
長水郡	[illegible]	[illegible]
任實郡	[illegible]	[illegible]
南原郡	[illegible]	[illegible]
淳昌郡	[illegible]	[illegible]
井邑郡	[illegible]	[illegible]
高敞郡	[illegible]	[illegible]
扶安郡	[illegible]	[illegible]
金堤郡	[illegible]	[illegible]
沃溝郡	[illegible]	[illegible]
益山郡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移秧狀況

▲全北【全州】農家의 水稻移秧期에 臨迫하야 若干의 旱魃은 계속되엇스나 全北道內는 山間部를除한 平野部에는 水利의 便이잇서 去六月二十日現在 總作付豫定面積의五割二分八厘의 移秧을 畢하얏다는데 昨年同期 三割六分에 比하면 近二割가량의 增加를보게되엇스며 昭和五年同期七割의 移秧이잇슨 以來 最近 六個年間에는 今年의 가장 良好한 成績을가지고잇다는바 이제各郡移秧別을보면 다음과갓다

郡別 今年度作付豫定面積 移秧濟面積

▲忠北【淸州】忠北道農務課調査에依하면六月二十日現在道內移秧面積은 三萬七千二百六十三町一段步로서 道內畓總面積의 五割五分一厘五毛에 該當하는데 前年同期의 一割七分에 比하야보면 三割八分가량의 增加를 보이고잇다 今年忠北道內는 大體로 降雨量이 適當하야 用水에 對하야는 天水畓을 除外하고는 아직까지 支障이업스리라고하는바 移秧狀況을郡別로보면 다음과갓다

郡別	移秧面積 町段	割
淸州	九、五三二、五	五、八八
報恩	三、九五〇、〇	七、二〇
沃川	一、五一六、二	三、二九
永同	六五七、〇	一、二三
鎭川	三、八〇〇、三	七、〇五
槐山	四、三九八、九	六、三一
陰城	五、三六七、六	六、八一
忠州	四、〇六〇、八	四、五〇
堤川	三、三一六、四	七、一五
丹陽	六六六、四	三、三〇
計	三七、二六三、一	五、五一五

▲慶北【大邱】慶北道農務課調査에依하면 六月廿日現在의 道內移秧狀況은 一般的으로 適宜한氣候의 惠澤으로 今年度畓移秧目標 十八萬三千三百七十九町步中 四萬四千二百五町二段步로二割四分一厘의移秧을 보엿는바 此를 昨年同期의 移秧을 보 十九萬五千百八十五町步 移秧濟 三萬一千九百八十二町八段步의一割六分에 比較하면 今年은 七分七厘의 增加라한다

▲咸南【咸興】道農務課의 調査를보면 二十日現在의 咸南道內 移秧狀況은 一部天水畓을 除外하고 그他는 大槪 順調로 進捗되어 八割八分으로 前年同期의 六割二分五厘에比하야 二割一分五厘의 增加를 뵈우고잇다 그러나 天水畓은 畓面이乾燥하야 移秧을 할수업다고 한다

▲江原【鐵原】鐵原郡은各面을通하야用水洽足으로移秧이順調로되어지난六月初旬頃부터 始作하야 지난二十日頃에 完了되어 一般農家에서는 喜色을 띄우고 잇다한다

各地春繭消息

忠北【淸州】忠北道內 春蠶繭共同販賣는 忠州郡을 最終으로 지난二十八日終了되엇는데그 出廻成績을보면 三等繭以上이十三萬七千五百五十貫에 五十八萬五百七十五圓七十九錢이오 四等繭以下가 二萬五千二百七十八貫에 四萬八千七百 三十三圓三十八錢 計十六萬二千八百二十八貫餘에 六十二萬九千三百九圓十七錢이라는바前年에比하야보면一萬五千百七貫의大增加를 보이고잇는데金額으로는 二十一萬七千二百九十六圓十七錢의 增加를보이고잇다 出廻成績을 郡別로 記하면다음과갓다

郡別	數量 貫	金額 圓
淸州	一〇、六二一、六三	四三、九四一、〇九
報恩	一五、一七五、〇〇	六二、一〇四、〇〇
沃川	一六、三五五、〇〇	七一、二七一、〇〇
永同	一五、六六九、〇〇	六六、〇六六、〇〇
鎭川	八、三七〇、〇〇	三三、八五六、〇〇
槐山	一五、〇三八、六六	六六、三四〇、七九
陰城	一三、五七三、〇〇	五八、五六〇、〇〇
忠州	二八、三〇四、三五	一二一、八二九、六六
堤川	一四、七六〇、〇〇	六六、七三一、〇〇
丹陽	一三、五〇〇、〇〇	五八、一〇八、〇〇
計	一六二、八二八、七七	六二九、三〇九、一七
前年	一四七、七二一、〇〇	四一二、〇一三、〇〇

【淸州】淸州郡內 春蠶繭共同販賣는 지난六月十日부터 淸州、梧倉、江西、米院等 四個共販場에서 一齊히 開始되엇는데 지난 二十五日 終了되엇다한다 그出廻成績을보건대 一萬六百二十一貫六百三十匁으로서 그代金은 四萬三千九百四十一圓九錢이라는바前年에 比하면 一千六百九十九貫의 增加를보이고잇스며 金額으로는 一萬六千百八圓의 增加를 보이고잇다한다 今年의 貫當價는 四圓十四錢이엇다는바 出廻豫想八千貫에對하야 二千餘貫의 增加를보엿다한다

全南【木浦】務安郡內春繭共販은 去二十五日望雲、綿城、木浦의 三個販賣所가 終了되엇는데 一千二百八十貫에 價額九千七百四十八圓으로 去年의 千九百貫八千五百에 比하면 二割의 增加를 보엿다 今年의 蠶繭은 優等品이 絕對多數를 占하얏고 等外品은 하나도 업섯다 此를 等級別로보면 다음과갓다

▲優等千三百四十八貫 ▲特等五百二十九貫 ▲一等百三十四貫 ▲二等三十五貫 ▲其他二百二十四貫▲計二千二百八十貫

平南【安州】安州郡內春繭共同販賣期間은 다음과갓다는바今年掃立枚數는 昨年보다 三千八枚가 減少되어 一千二百三十枚로收繭量은三千貫가량되리라한다

安州邑六月二十四日부터 十八日間 雲谷面, 大尼面六月二十四日부터 十日間

【江西】江西郡農會에서는 지난 六月二十一日부터春繭共同販賣를 開始하얏는데 價格과 日程은如左하다

▲江西邑內繭取扱所=六月卄三日 卄五日 卄六日 卄八日 卅日 七月一日부터 五日까지
▲東津面事務所=六月卄二日 卄四日 卄六日 卄七日 卄九日 七月一日
▲咸從面事務所=六月卄一日 卄三日 卄四日 卄六日 卄七日 卄九日 卅日
▼甑山面事務所內繭取扱所=六月卄一日 卄四日 卄五日 卄七日 卄九日 七月二日부터 三日間

等級	改良繭	普通繭
優等	四、六四錢	四、五一錢
特等	四、二八	四、一六
一等	三、九二	三、八二
二等	三、五七	三、四七
三等	三、二一	三、一二
四等	二、八六	二、七八
等外	二、五〇	二、四三
屑繭	上一、七〇 中一、四〇 下一、一〇	
玉繭	上一、七〇 中一、四〇 下一、〇〇	

【江西】江西郡農會의 今春蠶種 一千六百十八枚를掃立하얏는바今年은 多少旱魃로因하야 各種 農作物은 被害가 發生하얏스나 其反面에 養蠶만은 好成績을 보이어 收繭은 적어도 二千餘貫에 達하리라한다

【江西】江西郡農會에서는 去六月二十一日부터春蠶繭共同販賣를 開始하얏는데벌서實買된것이 一千二百餘貫 價額五千餘圓에 達하얏다하며 아직도四百餘貫은 實買가잇스리라하야 農會에서는 繁觀을하고잇다한다

平北【枇峴】平北義州郡 龍川郡兩農會에서는 農村副業의 大宗인 春蠶掃立을 銳意指導奬勵한바 特히 今年에는 天候가 養蠶에 適好한關係로 稀有의 大豐作이라고하며 또價格도 例年에比하야 稍高함으로 農家에서는 參蠶을 當하야 一大活況을 豫想한다는바 지난二十四日부터 義州龍川兩郡農會合同으로 枇峴共販場에서 共販을 開始하얏다는데 當日共販價格은 如左하다고한다(貫當)

	上簇改良繭 指導區	其他	普通繭
特上	五、〇四	—	—
特等	四、六八	四、五〇	四、三二
一等	四、三二	四、一四	三、九六
二等	三、九六	三、七八	三、六〇
三等	三、六〇	三、四二	三、二四
四等	—	—	二、八八
等外	—	—	二、五二
屑繭	—	—	一、四四
玉繭	—	—	一、三二

【鐵山】平北 鐵山郡農會에서는 例年과가티 春繭共販을 今月卄六日부터 七月七日까지 實施하기로 되엿다

運動競技

普專籠球部
滿洲遠征

普專籠球部에서는 이번夏期休暇를 利用하야 滿洲遠征을計畫中이라는바 一行十二名은 七月二十一日에 京城을떠나 途中平壤에서 一戰을交하고 新京 哈爾濱 奉天 大連等地에서轉戰한後 八月九日에 歸京할豫定으로 方今그準備에奔忙中이라한다

延專籠球部
湖南巡回

延專籠球部에서는 八月初旬을 期하야 籠球技術의向上發展을目標로 湖南地方을巡回할計畫을세우고잇다는데 豫定地는 全州, 群山, 光州, 木浦等이라하며 各地에서 模範試合또는 指導會等을열터이라한다

萬五千米競走에
金德淳君一着

서울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二十五回A마라손會代行의 一萬五千米(三十週)競走會는 三十日午後五時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二十七名選手가 參加한가운데열리여 金德淳君(神學)이 五十一分十三秒로 優勝하엿다

1 金德淳(神學)五一分一三秒
2 玄濟濬(外語)五一分一五秒
3 都昌植(三一)五一分二五秒
4 李敬鍾(商工)五六分三〇秒
5 李順成(廣州)五七分二五秒
6 許尙淳(京城)五七分三〇秒
7 崔慶煥(中公)
8 尹興根(養正)
9 鄭壽吉(白光)
10 吳炳天(阿峴)
11 李昌煥(徃十)
12 崔奉龍(白光)
13 金秀萬(京城)
14 李俊植(京城)
15 邊龍燮(中公)

아마拳鬪戰

全朝鮮아마츄어拳鬪協會主催의 第一回全朝鮮아마츄어優勝爭奪戰은 今一日과 三日의兩日間午後七時半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 行할터인데 同大會役員은 다음과갓다

▲會長玉驊珍 ▲本部委員呂運弘 林正燁 崔能鎭 崔在煥 張權 黃乙秀 朴商寶 洪聖俊 金德裕 卓泳模 尹明烈 朴三祚 朱奉植 鄭惠源 ▲審査委員黃乙秀 金正學 李惠澤 金振秀 金明德 金德鎭 金明坤 金德仁 金昌燁 ▲計時委員馬鳳玉 ▲記錄委員金炯德 崔徹 高鳳梧 徐廷禧 朴昊烈 ▲通告委員南一祐 嚴稟璋 ▲進行委員 李惠澤 金昌燁 徐廷璘 金圭煥 ▲醫務委員 李在馥

中等校女子
籠球戰評
(1) 籠協理事 丁相允

우리女子籠球界의 年中行事! 籠協支部主催의 女子中等校籠球리-그戰은 지난달二十日부터開幕되여 二十八日에 京城女高普의 優勝으로 그幕을 다치엇는데 이를 觀戰한 朝鮮籠協理事로서 延專코-취의 重任을 다하고잇는 丁相允氏의 戰評을 이에 紹介하는바이다 (寫眞은 丁相允氏)

女子籠球界는 昨年보다 그다지進步되지안엇다。男子의 進步度에比하야너무도 距離가잇는듯하다。

今年正月 全日本選手權大會評을보면 男子의 充實한 內容에比하야女子의 技術은 [illegible] 確實하고 投射의 正確率等 實로驚異에 價하다」라는 東京의 글이잇섯다。이말이벌서 朝鮮女子의籠球를 보면 너무도 뒤떠러진 感이잇다。

各學校가 다-專任코-취를 두고指導하고잇슴에不拘하고進步아니하는原因은 어데잇는가? 엣籍에는 [illegible] 히하여왓는것이原因이엇다 只今은相當히 是正되여 왓다고볼에도不拘하고 그『랭크』가 進步하기적이업다 一便 過度期라고하여오지 이미오랜만큼 過度期라고는 할수업고 素質의缺乏不足의生長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그原因을 再吟味하야 이狀態를 脫出하야만되겟다 여기에 여러가지原因을 늣구는 列擧하겟으나 筆者는 本格的으로 技術을 硏磨하는時期가 늣다고본다 即生理的條件으로보아 女學校三年生부터 本格的으로 始作한다는것이 큰原因이다 그것은 生理的變化로因하야 體重이불고 活動의圓滑을 欠하기때문이다

여기에心理的으로 羞恥心이드는것이잇서 完全한 基礎技術을納得을 못하기때문이아닌가한다。그러나 指導者의熱心과 『플레이어』의 努力으로써 一二年間을 練習을떠나면 『플레이어』로 [illegible] 하는것은 儼然한事實이나 技術이 좀더 向上할수가업다 그러닛가 每年每年同一한『코-스』를 踏襲하는것이된다 이것을 除去하기爲하야 나는二年生때부터 生理的變化가오기前에 本格的으로 基礎技術부터 께임의 概念에이르기까지 納得식히여서 三年生가되면 四年生時代에는 좀더나은 플레이를 할수잇지아니할가? 이것이 오직 筆者의獨斷的判斷일가는 未知나 各學校에서는 此에留意할 必要는잇다 이러한 意味에서 林東洙氏의指導下에잇는 女高普의 優勝을 嘉讚한다

却說 今般리-그에 『레벨』은 低下되어잇스나 그技術에잇서는 各校가 接近하야잇다는것만이저옥이 自慰가 되며 파스의圓滑性과 投射의 正確性이 보히며 『스톱』과 『런』等의 基礎技術等은 차츰나어지는듯한것은 깃부다 더욱이 本리-그初日부터進行에따러 飛躍的으로 進步하는感이잇는것은 오는가올 씨-즌에 큰期待를 주는것이잇다。參加팀의多數로因하야 A·B兩組로 나노아 行하게되얏는데 宏巧로웁게도 A組가 斷然强하고 B組는 女高普를 除하고는 그야말로 『B클래스』에 屬할만한末熟이엇다 그럼으로 A組의對戰과 決勝이 볼만한 께임이엇다고하야도 過言이아니다 A組의 優勝팀第一高女는 强팀을 익여서 優勝한만큼 그間에 만흔試練이 잇섯고 B組의 優勝팀女高는 無難한 相對에 優勝하엿다는 가벼움이 잇스나 께임의 苦難이 적은만큼 決勝은 第一高女에 오히려旗色이조왓다고보앗스나 當日께임으로 보아서는 一方的이라고 볼도 過言은아닐만치 女高普의 快勝에도라갓다

그原因은 어데잇는냐하면 女高普로써는 一高女의『존』에對하야 그硏究가 深刻하엿다 一高女는 苦難을 겪어온만치 좀安堵의빛을 내인듯 그날께임에女高普의 時時의『아닥』에 無策이엿스며 後半은 『존』을 버리고서『맨투맨』으로 變化防禦하엿다 (續)

今日의運動

▲拳鬪=全朝鮮아마츄어拳鬪協會主催 第一回 아마츄어拳鬪優勝爭奪戰 第一夜午後七時半 京城運動場特設링(觀覽料=링사이드一圓、一般五十錢、學生三十錢)

祝蓄音器祭

오케-레코-드

禁斷의꽃 一二〇一〇 張世貞
사랑실흔南風 一二〇〇九 金貞九
임자업는男妹 一二〇一一 南仁樹

賞與金만타면 (〇一三八)
朴英鎬 詩
李龍俊 曲
斷然無敵의豪華盤
七月十五日發賣
戀愛讀本 盧麗花
人間써-커쓰 崔南鏞
港口의스타일 (合唱)

태평레코-드

豫約募集
春香傳 레코-드의金字塔!!
春香傳全篇
우리의最大의古典이오、판소리의大宗인春香傳全篇을 가장理想的인멤버-로써 最良의吹込技術을겸비석현春香傳의決定盤!
吹込藝術家 丁貞烈 李花中仙 朴綠珠 林芳蔚 金素姬 (鼓)韓成俊
全篇拾九枚 (紫色레벨) 일범二冊附 金貳拾圓 初回配付七月十日
각가운特約店에 곳申込하십시오
빅타-레코-드

포리도-루
朝鮮文藝會作品發表
來日 崔南善詞 李鍾泰曲 玄濟明
동산 崔南善詞 李晃相曲 鄭勳謨
레코-드番號 CL一

金剛山へご招待大賣出し
期間 自六月二十一日 至七月二十日
祝蓄音器祭
蓄音器 レコード 三圓買上하실때마다 抽籤券一枚 及粗品進呈

山으로……바다로
音조코…가벼운
手提型은二十五圓부터
京城鍾路二 山口樂器店 鍾路支店 電光四八
テーオー蓄音器賣捌元 テーオー商會 京城西大門町二丁目 電話三四八番

地方論壇

城津漁港擴張의 急速實現을促함

城津漁港은 東海岸交通上으로 보아 北部朝鮮의 重要地라아니 할수업다 이제 城津漁港의 大略을 一瞥한다면 水產製品檢查所城津出張所管內의 漁業戶數는 八千戶、人口는 三萬人、地元漁船만이 三千隻、石油發動機船이 三十三隻이오 季節을 따라서 他地方의 漁船도 多數히 集散하는것이 적지안타

城津漁港은 人爲的施設은 不加하고 天然그대로 放置하얏스므로 漁港의 機能上 莫大한 支障은 勿論 暴風이 甚한 東海岸에잇서서 때로는 不意의 災害를 蒙하는일이 頻多하더바 지금으로부터 六年前인 昭和六年부터 三個年의 計劃으로 事業費 二十一萬四千圓 地元民負擔 五萬六千圓을 投資하야 防波堤延長 二百三十五米 埋築有効面積 八千坪의 施設을 達成하여왓스나

近代水產業의 科學的操作은 加速的施設을 要하게되여 漁港의 現施設로는 不足함을 보이고 잇다 昭和十一年度第二期埋築工事를 着手한結果 港內의 水面約二萬平方米의 擴張을 보게되엿스나 오히려 不足之數이 實로적지안타 昨年五月내에도 一夜의 暴風으로 漁船幾隻이 破損되어 死者가三十餘名에 達하엿다고한다 地方의 發展을促成하기爲하야 北部線에 依하야 一層重要性을 가지게된 北部朝鮮을 橫斷한交通網의 强化를 爲하야도 이城津漁港의 擴張은 實現할것이다 다른地方漁港에 比하면 數十倍의 飛躍的發展을 할것이다 이런 發展을 爲하야 城津漁港은 一日이나 急速을 要할 最大의 緊急한問題이므로 城津邑會町民會에서는 얼마전에 咸北道當局에 陳情하엿다는바 一般地方民諸氏는 이에對하야 期待는 나날이 높하가므로 當局者는 하루바삐 善處가잇기를바라는바이다 (城津支局 一記者)

農園의딸기땃다고 十九名生徒黜學
學校處事에學父兄側도憤慨
安州農校의不祥事

【平壤】 안주공립농업학교(安州公農)당국에서는 지난이십팔일에 그학교사학년생도십칠명 오년생도삼명합계십구명에대하여 대량퇴학을명햇다

퇴학의리유는 전기십구명생도가 수일전 그학교농원 딸기밧가운대에 드러가 딸기를전부따먹어 딸기밧을 결단내엿다는것으로 이에대하야 학교당국의처치가 너무도 가혹하다하여 학부형들의 분개도크려니와 생도들의 동요하는빗도 농후한모양이어서 안주서에서는 경계중이라한다

順天記友會總會

【順天】 지난이십삼일 오후네시에 순천공회당에서 제사회기우회정기총회(第四回記友會定期總會)가 열리엿는데 임원개선 기타결의사항은 다음과갓다

一、任員改選 ▲委員長 金正基 ▲會計 梁泳植 ▲書記 鄭在綸

二、例會開催 ▲期日 每月第三木曜日 ▲擔當順番 東亞 朝鮮日日 朝鮮日報 商工新聞 京日 每申

一、本會는 積極的으로 梅山學校存續維持後援會를 督勵키로함

一、市民의 文化向上을 圖謀하야 會讀會를 設置하고 新聞雜誌等을 一般에게 閱覽케할것

光陽貧農六十名 長津으로移民

【光陽】 이번광양지방에서는지난이십오일오후여섯시에로동자륙십명을 모집하야 뢰호주임(瀨戶主任)인솔하에 그들의일터인장진강수력전기회사(長津江水力電氣會社)공사장으로 향해떠낫는데 오는 십일월경이면 다시귀향하리라고한다

蚊帳에引火되여 一家族三名死傷
大田春日町서첫犧牲

【大田】 지난이십구일오전령시오십분경 대전부춘일정(大田府春日町)이정목리화실(李化實)의 모친한씨(韓氏)(六〇)라는 로인이모기장(蚊帳)안에서 초불을켜가지고 모기를잡다가 초불이 모기장에부터 이불괴요가 타버리는 바람에 가치자든 손자리순영(李淳榮)(三)과 족하덕수(德須)(八)가 불속에 드러가게되야 순영은 동네시경무참히도 죽어버리고 덕수와한씨는 모진화상을당해 목불인견의 참극을 연출하엿다한다

第二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 七月下旬保寧서

【大川】 제이회전조선남녀개인정구대회를보녕군체육회주최(保寧郡體育會主催)본보보녕지국후원하에금년해수욕(海水浴)기를 리용하야 칠월이십일일로 개최하기로한다는바 상품은 다음과갓다

◇賞品 優勝旗外副賞(優勝組에는旅費二十圓提供)

工事用까소린車에 堂堂旅客을取扱
便乘券엔事故責任不負의怪文句 事故頻發松本組에非難

【高原】 지난이십오일오후한시반경에 평원철도 청부업송본조운수부(平元鐵道請負業松本組運輸部)까소린차가 고원역을 떠나성내까지 갓다가 도라오든도중축전교(祖田橋)에 이르러 질주하든 바퀴가 탈선되면서 급히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중 수동면이동리(水洞面二東里)사는 정기호(鄭基鎬)(三七)와 그의 손녀수월(守月)(四)이가 다리우에서 어린손녀는 떠러지고 정씨는 다리란간에 걸리여 중상을입어 방금당지 상원의원(三元醫院)과 고원의원(高原醫院)에 입원치료중이라는데 생명이 위독하다는바 원시 송본조에서는자기들이 동철도 제四공구부설공사를 착수중 도구운반하는까소린차에 편승권(便乘券)을 한키론(一粁)에 륙금 오전식을밧고 일반통행인에게 팔기로되엿다는바 편승권리면의 심득(心得)을 본다면『승차중고장이생하여 부상을 당하여도 책임은절대 지지안는다』는 문구가씨원 잇다는데 밤서 동까소린차에 생명을 이러버린자 또중상을입은자수가 오늘명에 달하여 금번에도 목불인견의 참상을 연출하엿다고 일반은 송본조에 대한 비난이자자하다고한다

〃丸나〃新義州支部 共販改善陳情

【新義州】 마루나(丸나)협회신의주지부서는 지난번 신천(信川)에서 개최한련시총회의결의(決議)에기하야 동지부 림(林)리사가대표로 이십륙일도에 근등(近藤)농무과장을 방문한후 공동판매제개선(共同販賣制改善)에관하야 진정을 한바잇섯는데 진정의요지는 최근도 군농회 금융조합에서 농산물의 일수판매를하는 경향이 만타는것은 상류지방의 공가는것이 최근의 일례이다 우리업자는『콩』은 물론 농산물개량(改良) 판로(販路)개척등에공적이 적지안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를 중간착취자로 취급한다는것은 인식부족이다 공조공영의 견지에서금후의공판제도에 대하야는 우리업자에게도 시설에 관여시킬것이다

人夫十七名作黨 巡查에게暴行

【定州】 박천(博川)태생 김태현(金泰賢)외십륙명은 정주달천강 호안공사(護岸工事)인부로서 정주읍에 류숙하고잇는데 지난이십팔일오후네시경에 정주읍내 정주위생조합(定州衛生組合) 분뇨차(糞尿車)가 주인집아페 노혀잇슴으로 악취가 발산하니 그냥둘수업다하여 전기십칠명은 합력하여 그구루마를 치워버리엿는데 이것을 목도한정주서순사가 달려가서 구루마를다시끌어오라고 하엿는데 인부일동은순사에게 폭행을 가하엿다는데 정주서에서는 금후 정주수풍(定州·水豐)선공사착수를 압두고로동자의 횡포를 견제하는의미에서 이번사건은 엄벌에처할방침이라고한다

人夫一名重傷 【鏡城】

무시무시한 세파에서 알음만

注文津港에大火 二棟三戶半燒
損害額約五千餘圓

【注文津】 지난유월이십륙일오전두시삼십분경 강릉군주문진항(江陵郡注文津港)김응칠양복점(金應七洋服店)에서 불이나서 린접한 김영복(金榮福)김장근(金長根)량씨의집까지 연소시킨후 소방조의필사적노력으로 동오전오시경에 진화되엿다 화재의원인은전기김응칠양복점에서 밤이늣도록일을하다가 배가곱흠으로 이웃냉면집에 국수먹으러간사이에 불이드러잇는대리미를 부주의한까닭에 양복견본조각에 불이부터 엽헤노엿든 휘발유병이터지면서 그와가티 화재를내인것인데 손해액은 세집에 합오천여원이라한다

件數로는減少나 損害金額은倍加
昨年中黃海道祝融禍

【海州】 황해도보안과(保安課)에서는 얼마전부터 작년중의도내화재상황을 조사하든중 요지음 그집계를마치엇는데 그에의하면 작년일년동안에 불이 이러난건수는 이백사십삼건이며 그피해총액은 무려이십삼만일천오백원이란 놀라운수자를보이고잇다 이것을 그전년도통계 이백오십건에비하면 건수로는 일곱건이 주럿스나 피해액십일만원에비하면 배액이넘는 십삼만일천오백원이 늘엇다 화재건수를 군별로보면 다음과 갓다

海州二一件 延白一四 金川一〇 平山三六 新溪九 瓮津七 松禾八 殷栗一〇 安岳三 信川一五 載寧一五 黃州六 鳳山[illegible] 遂安九 谷山一五 計二四三件

雨! 未洽하나마 적이安心 (西北朝鮮)

【平壤】 대지우에 성장하는 만물을소생시기는 자우는 이십팔일밤부터 나리고잇서서 평양의우량은 전후를통하여 오십오미리에 달하여 일반을 깁부게햇다

이번비는 평남전폭에 끌고루내려 말라가든 농작물을 재생식혓는데 전작에는 퍽흡족하나천수답(天水畓)이나 건답(乾畓)은 아직도 비가부족하다한다

【海州】 요지음 황해도지방에는 한발(旱魃)이 날로 계속되여 콩(大豆) 팟(小豆) 조(粟)등 밧곡식이 말러부터 밧(田)곡식은 물론이요 연백 해주 옹진등해안지대를중심으로 이앙을필하지못한 논의면적이 삼만여정보에달하야 농어황해의금년농형이 실로우려되고잇는이때에잇서 일적천금의 단비가 내리여농민은 기쁨에넘치여잇다 즉지난이십팔일 황해도농무과(農務課)에 도착된보고에의하면 이십팔일 하로동안에 황해도내에 내린우량은 해주의 이십팔미리를 비롯하야곡산의오십팔미리를 최고로 평균삼십오미리에달하는데 그내역을군별로보면 다음과갓다

郡別 雨量(미리)

海州 二八、八(二十八日一七미리) 延白 二一、〇(同 一〇)・金川 二七、〇(同 〇、八) 平山 三一、八 新溪 五四〇 甕津 一七、八(同 一八) 長淵 五七、三 松禾 四〇、〇 殷栗 一八、〇(同 五、〇) 安岳 六一、〇 信川 八九、〇 載寧 四七、〇 黃州 四九、〇 鳳山 三六、五 瑞興 三七、〇 遂安 四六、〇 谷山 五八、〇

【鎭南浦】 기다리든비는 나리엿스나 만물이 소생의혜택을입고잇거니와 진남포특산 평과는 한발로 인하여 과수원마다 축과병(縮果病)이 발생함으로 크게우려하고잇는바 이번에 나린비로인하여 축과병이 일소되엿슴으로 과수업자들은 대만족을 할뿐아니라 평과는전체로보아 작년에비하여 약사할이 증수될것이라고함으로 대풍작이 예상된다고한다

【安州】 평남안주지방에는 지난륙월십사오일경 몃시간시나가는 소낙비가 나렷슬뿐 이래가물을 계속하야 만물이말라시들게되야가든바 지난이십오일부터 비가오기시작하[illegible]시 계속함으로 [illegible]진감이잇스나 일반적으로 흡족하리라한다

【安岳】 제이앙의당절인차에 한천이게속되여 민심은 극도로초조하든중 지난이십륙일오후이시부터나리기 시작한비는 이십칠일까지 계속되여 일반은 깁버하면서도 미흡의감을 늣기든바 이십팔일밤부터 쏘다지는비는 이십구일도 끈임이업서 수원이업는건답까지 일평의남김업시 석부룩완료케되여 이앙군의풍년곡이 방방곡곡서요란하다

【慈山】 순천지방은 이십팔일밤부터이이십구일낫까지 강우하엿다 이앙(移秧)은 다필하고 비만기다리고잇던중 십여일만강우하지아니하면 농작물이말라 죽겟다고걱정하던차에 강우가만족히내려농부들은 풍년놀구가하고잇다

【舍人】 평남순천군일대에는오래동안 초조히기다리고잇든점우가 지난이십륙일밤부터 나리기시작하야 이십구일 오후까지 오락가락나리고잇다 비록시원치못한 안개비로서 우량은 얼마못되나 그동안 말라쪼들든 식물들은실로 갱생의 활명수가 될것으로 얼마큼 농민들의수미를 펴게햇다 그러나 천수답의 이앙수까지는 아직도 무망한상태로 시원스러운소낙비가 어서 나려주엇스면 조켓다고 안타까이도 기다리고잇다

【鎭興】 함남영흥지방은 원봄이래 비한방울내리지아니하여 이미파종하엿던 전곡은 발아의불충실과묘종의 불성장으로 일반농가의큰우수가되여 올뿐만아니라 더욱이나 현시가 이앙기임에 불구하고 묘판이거개 고갈되여풀은하날만 처다볼뿐이드니 지난이십륙일하오세시경부터 가는비가내리기시작하야 동이십팔일까지는 흡청흡강하다가 이십구일오전구시부터 비는본격적으로 내리기시작하야 아즉개지안코 퍼붓고잇다 이에일반농가에서는히우에 조자를맛차가며 묘심기에분망중이다

咸南道各工事場의 斡旋人夫續續離散
勞働에熟練치못한것等原因
募集上粗漏도不無?

【咸興】 함경남도내 단풍철도(端豐鐵道)와 장진강수전(長津江水電)의 두공사장에서 금춘부터 총독부의 알선으로 수송하야온 로동자들은 약삼천오백명 가량되는데 그들은 오면서부터 수명식 리산(離散)하기시작하야 현재는총수 약팔백명이나 다라나버렷다고한다 그들이 다라난원인은 대개그들은 농촌로동자들인관계로 로동에는 익숙지못하야 일이퍽어려운것과 또한 농촌에서의 유장(悠長)한 로동에 비하야 로동은 일정한시간의제한을 밧게되는것이 퍽괴롭다는 것등이 주요한원인이 되리라고 추측되며 또한가지는 모집로동자가운데는 심시어 려관집『뽀이』리발업자등 전혀로동이라고 알시못하는 사람들이 석기어잇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국에서 모집할때의 조루(粗漏)한탓이라고할수박게업다 어떠튼 각 청부업자들은 인부들의 리산을 막기위하야 여러가지 위안방법을베풀고잇다고한다

물싸홈하다가 農友殴打致死

【海州】 이십오일오후여섯시경신계군다면백공리(新溪郡多面白公里) 김양가(金良家)(二九)와 김양성(金良成)(三一)두형제는 그동리에사는 강칠성(康七成)(三二)과 논물때문에 싸호든끗테몽동이로 강씨의 머리를따려 중상을입히엿는데 그이튼날 오후두시에 죽어버리엿스므로 신계서에서는 김양성형제를 인치취조중이라한다

隣接面廿六個里 編入期는十月頃?
街路整理도따라運延

【平壤】 편전대동강면(大同江面)의십사개리 고평면(古平面)의삼개리 룡산면(龍山面)의삼개리 서천면(西川面)의 삼개리 림원면(林原面)의삼개리 도합오면이십륙개리를 편입하여 현재면적의삼배집부근화장하려는 대평양부의 행정구역확장은 시가지계획사업과 불가분리의 관계이므로 급속실현수행상 될수잇는대로 급속편입을 하고저 지난사월부에 대하여 인가신청을하여놋늘에 이르럿는데 아마도편입시기는 대체로시월경에나 될것으로 예상된다

시가지계획에대한 가로측조얻은 편입시기까지 기다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잠정적법으로 압서발표된 총독부고시에따라 신편입구역의 도로측조권한은 부윤에게 부여되엿다하나 부로서는 공사관계뿐아니라 일반행정적권리까지 획득하고저 하로라도 급속히인가가 도착되기를 히망하고잇는터이다

날은 다대수의로동자들은 이제적후의 지하에물려들어 생사의위경에서 강업이아니면 치명적 중상을입는 사실을세상은 어떠케 보고잇는가 생기령 광업소 유덕항내(生氣嶺鑛業所柳德坑內)의 사고빈발은 종업로동자들에게 큰위협을 주고잇서서 회사측에서는방상 안전사고개무를 려행하고잇든차에 지난이십오일 도동항내에서 작업하든 로동자한명이 구루마에치여 빈사의중상을입어경성의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江西教育界의盛擧
郡內公私初等三十五校教員
―百餘名이모혀懇親―

【江西】 강서군내에잇는 공사초등학교(公私初等學校)삼십오개소의 훈도백여명이 지난이십륙칠량일간 강서군반석공립보통학교에 모히여 친목을목적으로 피곤한몸을 펴는동시에 평남도시학까지합석하야 대성황리에 친목의하로를 지냇다는바 금번회합도 그야말로 교육자의회합이니만치 장래어린이들의교육상큰도움이되리라고한다

(產業視察團) 在留同胞迎送裡 無事吉林通過
同榮幼稚園에金百圓을

【吉林】 본사주최산업시찰단일행은 북중국을 도라 대련(大連)봉천(奉天)신경(新京)합빈(哈爾濱)을것처 예정대로 지난이십이일오후한시십오분에 길림민회장 최태욱(崔泰旭)씨를 비롯하야 일반관민의 다수한 출영리에 길림에 도착하자 연루에는 특히 동영소년군(同榮少年軍)이 총출동하야 먼길에 피로한일행을 뜻깁히 마저는데 일행을대표하야 본사영업국장 김광수씨로부터 이역에서 맛나는어린이들의 씩씩한자태를 칭송하는의미로 사례가끗난다음 일행호텔에들어 잠간쉬인후 자유이민개척지서란산농장(自由移民開拓地西蘭山農場)으로향하야 실지시찰을 하엿스며 밤여듧시부터당지동영회 주최의 환영간담회에 참석하야 산업에대한 각방면인사의 설명과 문답으로 열한시에끗나고 령시오십구분발 도문행렬차로 출발하엿는대 특히당지유년교육기관인 동영유치원에 금백원을 긔부하엿다

富居農實校의 新築落成式盛大

【鏡城】 금년조에 부녕읍(富寧邑)에서부거면(富居面)으로 이전하게된 부거농업실수학교(富居農業實修學校)는 그동안 교사를신축하고 지난이십오일오후한시부터 신축락성식을거행하얏는바 지사(知事)대리로 리내무부장(李內務部長)이하 다수관민의 림석으로 대성황을 이루엇다

동교는 종래의 수업년한 이개년을 다시 단축하야 일개년으로하야 교육의목적을 지육(智育)에두지안코 지육과는 관계를 멀리하고 될수잇는대로 실습(實習)에만 전력을다하야 일개의 농부로서 완성시키자는데잇다 이가곳 소위 농사수련장(農事修練場)으로종래의 학교관념을 전복시키는데 주력을두고 나아가는 조선교육계에 새로운 방향을잡하는곳이다

邑面吏員講習生募集

【淸州】 충청북도에서는 읍면행정강습소 제삼회입소생 약간명을 모집하기로되엿다는데 원서제출기한은 칠월말일까지로 상세한것은 부근읍면장에게 조회하라고한다

淸道川에水量不足 洑水灌漑에異狀
郡警이出動分水調停

【淸道】 전조선을통하야 내리는 비는 청도에도빼지여시 강우가 내리엿스나 아직도이앙을하기에는 태반부족하야 청도천(淸道川)흐르는물이 정정숙에드리 각낫(角釘)의각에여두곳을 판개하는 서신평야(西新平野)의보수(洑水)를 인수하기에 큰공황을 느겻든바 더욱이 금번홍수에하상(河床)의위치가 변한까닭으로 자연물길을 따로히내지안코면안 될처지에잇슴에따라 서신성보아래에잇는 이서면전쌍보(伊西面雙坪洑)와 서로단개하는 수량(水源)을분배할 긴박한정세아래에잇서서 잘못하면 물싸홈이이러나 수백작인의편전이 될위협성이만흠으로 지난이십팔일 군면당국은 사태의중대성을보고 무더운날배사장우에서 보를을분수(分水)하기에 종일노력하고잇섯다는바 이는당면동리구역 일천여두락의수리에대한 중대한문제이니만치 량면작인대표의립회는 물론 경관대오륙인도현장에급거출동하야경게의진을이루고잇나한다

工費二千餘圓으로 新興夜學校落成

【退潮】 함주군퇴조면신흥리(咸州郡退潮面新興里)에서는 지난이십륙일 야학교사의 신축락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얏는바 관민유지가 만히참석하야 대성황을이루엇다 그야학의창립된 경로를들으면 보통학교에입학할수업는 년령초과된아동을 위하야 소화이년상설한후 의숙으로설치되엿든것을 금반사설야학으로하고 교사를동리유지의 특지로 기금이천이백원을모아가지고 신축한것인데 현재 재학아동수는 백오십명이라한다 당지설립자와 강사는 다음과갓다

設立者 盧在根 盧孝烈 講師韓炳老 盧榮叔 盧禹錫 盧漢

美華刺繡講習會

【兼二浦】 당지 기독청년여자면려회(基督靑年勉勵會)주최와 기독청년남자면려회(基督青年男子勉勵會)와 본사겸이포지국후원으로 지난이십팔일부터일주일동안 창성유치원(昌成幼稚園)에서 자수계의권위자 김문규(金文圭)씨를 초빙하여 미화자수회(美華刺繡會)를 개최하엿는데 회원는일반부인들만으로하고 회비는일원이라하며 풍경(風景)과 동물(動物)기타실용작품을교수할터인데 일반부인들은만히입회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自殺二題

【平壤】 이십칠일 평양부내에서 자살두건이생기엇다

첫재 평양부내 관후리(館後里)일백칠십칠번지 재산가 평양부회의원 손연식(孫延植)=假名=의애첩 김인애(金仁愛)(二三)는 이십칠일오전일곱시 자기집들보에 목을매고 죽은것을 발견 대소동을연출햇는데 병고로 고생하든중 애인손연식에게 배반을당하게된것을 극도로 비관하여 자살햇다

둘재 부내선교리 국옥(菊屋)이란려관에 투숙중인 금융조합련합회 서기 시야성화(矢野盛和)(二三)는 이십칠일오후열두시경 하숙집에서 『아다린』을 먹고 침에 발견하고 도립의원에 운반해다가 응급수당을 가햇스나 넘우 다량을마시엇기때문에 생명이위독한바 최근신경쇠약에걸린것을 비관하든남어지 발작적 자살을 도모한모양으로 송산고상(松山高商)출신의수재엿섯다한다

生活難에부대껴 女子自殺企圖

【鎭川】 지난이십일오전열한시반경 진천군만승면광혜원리(鎭川郡萬升面廣惠院里)에사는 김봉윤(金鳳允)의 처하씨(河氏)(二四)는다량의양잿물를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생명이 매우위독하다는데 그는 다섯식구에 생활이 곤난할뿐아니라채무일백팔십원을 가풀길이 막연하여 한만흔 세상을비관하고 자살하랴고한것이라고한다

社告

營業局販賣部直通電話를左와如히新設하얏사오니照諒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本局 六三八一番

今般本社에서左와如히支局을設置하얏사오니照諒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江東支局 位置 平南勝湖里市 右任支局長 金周用

鳥山支局 位置 京釜線烏山驛前 右任支局長 李旼燮

扶安支局 位置 全北扶安邑 右任支局長 金宅權

白馬支局 位置 京義線白馬驛前 右任支局長 鄭利善

永同支局 位置 京釜線永同驛前 右任支局長 金台泳

今般本社에서如左히支局을變更하얏사오니照諒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定平支局 位置 咸南定平邑內 右任支局長 韓炳洛 支局長 金秉七 右依願解任

順天支局 位置 全南順天邑內 右任支局長 吳永植 支局長 金晳柱 右依願解任

牡丹江支局 位置 牡丹江西長安街 右任支局長 李振國 支局長 金昊松 右依願解任

今般本社에서左와如히分局을設置하얏사오니照諒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大平分局 位置 平南線大平驛前 右任分局長 成德基

今般本社에서左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얏사오니照諒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長水販賣所 位置 全北長水邑內 右任主任 柳東彥

竝川販賣所 位置 天安郡竝川市 右任主任 林鼎鎬

謹告

殷栗支局 金山浦分局長 金鳳燮 右新任

群山支局 臨陂分局長 文永宗 右新任

槐山支局 牧渡分局長 池相國 右新任

開原支局 移轉位置 開原楊鹿大街五三

雩社分局 記者 金在澈 右新任

滿浦支局 時川場駐在記者 金成煥 右新任

安州支局 總務兼記者 金在瀅 右新任

金村支局 總務兼記者 鄭宗奭 記者 盧辰植 右新任

杆城支局 記者 崔[illegible] 右新任

長篇小說 어머니 【79】

李箕永 作 鄭玄雄 畵

第二、母性篇

四、아들의상경(一)

인숙은 남모르는 시름을 안꼬 그날그날을 지나는 동안에 덧업는 세월은 그뒤로 삼년이 흘러갓다——

네살먹은 진영이는 못할말이 업시 재롱을 잘하고 안팍그로 도라다니며 작난을치며논다。 커갈수록 낫자라는 인물은 살결이희고 아리따웟다。 크고도 색까만 안청이 총명해보이는 눈! 박씨부인은 그눈에 홀리엿다。 남의자식이라도 어여쁜아이를보면 귀애하려든 할올며 제자식이 그러타면 더말할나위가 무엇이랴? 인숙이는 남모르게 사랑을 진영이에게 퍼붓고 박씨부인도 참으로 자기자식처럼 진영이를 귀애하엿다。

그동안에 시굴잇는 덕근이도 무척컷다。 그는 올봄에 그곳보통학교를 졸업하게되엿다。 인숙은 그아들을 상급학교로 입학을시켜야할터인데 그러자면 시굴식구를 다려다가 서울살림을 차리지안코는 안되엿다。

실로 인숙은 유일한 희망이 그것이엿다。 그는 어서 그아들이 보통학교를 졸업하기를기다렷다。 그것은 아들의장래를위함이지만 원집안식구가 한집에모혀살고도 십헛슴이다。 그것은비단 인숙이뿐아니라 그의 늙은어머니와 어린 덕근이도 그러하엿다。 과연 덕근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넘우도 주렷다。 인숙은 서울로 공부를간다고 올나와서 이날이때까지 그를떼노코잇지안헛는가? 그생각을하면 덕근이가 불상해서 어떤때는 남모르게 울기도 하엿다。

아비가 각각인 아들과 딸을 나은인숙은 이자식을 보나、저자식을 생각하나 애닯기는 매한가지엿다。 한아비는 죽엇스니 더할말업고 또한아비는 비록사럿스나 남의 아비로서 상관업시되엿스니 아비업는 그자식들의 압날이 장차 어찌될것인가? 그는 아비대신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지안흐면 안될것을 깨다랏다。

행인지 불행인지 진영이는 이집으로 드려와서 잘크고 또한 자기가 기르게되엿스니 안심이된다마는 그러나 덕근이는 그동안에 얼마나 어미를 그리워하엿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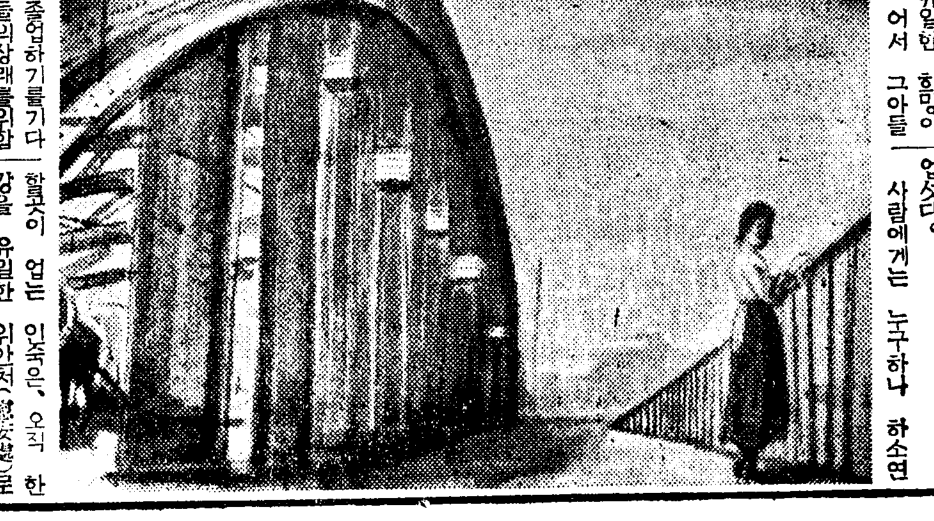
인숙은、미리부터 그생각을하고 시골집에는 다달이 십원식을 보냇다。 그리고 남어지는푼푼히 저금을 하엿다。 삼년동안에그것도 적지안햇다。 거기다가 가외돈으로 생기는것까지 해마다 설달이면 세찬으로 돈을밧고사철의복가과 용돈을타는데서도그는 조절히쓰고 남는것을 푹푹 모아두엇다。 큰악한 살림을 하는 집에잇는만큼、그는 어수룩하게 생기는 돈도 잇섯다。 그러케 모흔것이 지금은 그럭저럭 수백원이되엿다。

인숙은 이집으로 온뒤에는 한번도 시굴집에를 가지안햇다。 그는 집이、서울에 잇다고꾸며대기때문에 모친에게는 편지를 할적마다 당장은 마려달라고당부하엿다 모친도 딸의속을 잘아는 만큼、한달에 한번식오는 편지를보고 저윽이안심할수가잇섯다。

그러나 인숙은 집이 서울에 잇다며 한번도 다니러 가지안나서、월급을 타는날이면 집에를 다니려간다고 나왓다。 그는 호면 이집식구가 의심할는지몰라 그길로 우편국으로 가서시굴집으로 돈을 부치는것이엿다。

편지를 부치고나면、바로 집으로 드러가기가 무엇해서、그는 공연히 한바퀴를 핑-돌다가、저녁때에 드러가군하엿다。 그럴때마다 갈곳이업는 그는 한강으로 나갓다。 조흘때나 나쁜때나 그는 한강밧게는 갈곳이 업섯다。

사람에게는 누구하나 하소연할곳이 업는 인숙은、오직 한강을 유일한 위안처(慰安處)로 찻고 십헛기때문에——。

과연 오늘날——신앙까지 버린 인숙은 누구에게 자기의 서름을 하소연 할것이냐? 신앙에서까지 버림을 바든 인숙이는 오직 묵묵히 흐르고잇는 한강을 보고십헛든것이다。 그러다! 그는 자기가 신앙을버린것이 아니라、신앙이 자기를버린셈이엿다。 자기가 처음 서울로 올라올때、큰희망을 품고 기쁘게 바라보든곳도 한강이오、창규와 최후로 만나서、비극적 단판을 하든곳도 한강이아니든가? 한강은 비단 자기하나뿐 아니라、고왕금래(古往今來)무궁한시간에、이나라사람의얼마나복잡한 력사적광경을 목도한 증인(證人)이냐? 구비구비 흐르는 푸른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이련만은、실로、이때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만흔 변천과 성쇠를 거듭하고지나왓든가? 한강은 얼마나 만히이나라 백성이 죽고사는것을 보고 그들의 희비극과 야만과비행을 보고 또한 얼마나 만흔 생명을 집어삼키고 살려냇든가? 한강은 참으로 기뻐자는 자기의 즐거움을 뛰놀곳이요 슬픈자는 자기의 비탄을 하소연하며 가슴을 두드릴곳이 아니든가!

한강이야말로 서울사람의 심장이요 대동맥갓다고 인숙은 시금 가슴속으로 느끼엿다。